

해작업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약 3만여명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가 하면 300여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매년 작업환경을 측정, 환경개선토록 유도하여 왔으며 이 밖에 정기건강진단 9만여명, 채용검진 2만4천여명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5만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했는가 하면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보건교육 및 성교육을 200여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 협회소식 *

창립기념일 맞아, 우수직원표창

협회의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협회에 몸담아 오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직원을 각지부에서 추천받아 선별된 직원에 대하여 조규상회장의 표창장과 부상을 각지부장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표창자 명단)

지부명	소속	성명
본부	총무과	송명덕
서울지부	산업위생과	임창호
부산지부	건강관리과	위윤복
대구경북지부	건강관리과	박찬주
충남지부	건강관리과장	임시우
전남지부	사무국장	진성구
전북지부	산업위생과	박형곤
경남지부	관리과	권영돈

○ 지역특성 및 사업추진방향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미공업단지는 정부의 수출입국의지로 계획조성되어 전자 및 섬유분야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중소도시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적 근로자 대부분이 사춘기 전후의 여성근로자들로서 구성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사회적, 보건관리적 문제가 많다. 따라서 당기관은 건강관리를 직업병 및 일반질환에만 중점하지 않고 사회적, 정신적 건강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보건교육 및 성교육, 건강상담 등을 강화하여 육체적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 건강관리로 승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중이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인력, 자료, 기구등을 86년부터 더욱 보강할 계획이며 지역내 유관기관과 더욱 밀접한 협력관계로 명실공히 근로자 건강관리기관으로 확고히 할 방침이다.

창립기념자축회

협회는 지난 11월 21일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반포동 소재 가야성에서 조규상 회장을 비롯하여 재경 임원과 특수검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창립기념자축회를 가졌다.

제 4 차 실행이사회 개최

- 86년도 제 4 차 실행이사회가 11월 4일 11:00 당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실행이사회는 당협회가 진폐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과 국고지원 안전보건진단 추진상황에 대한 최병수 업무이사의 보고와
- 86년도에 개최될 한일산업보건학술 집담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다.

- 또한 12월 25일~29일에 실시한 '85년도 특수검진기관의 실사세부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특수검진기관 실사 심사

○ 특수검진기술협의회(회장: 조규상)는 전국 30개 특수검진기관의 85년도 검진실태를 파악기 위해 6개 실사반을 편성, 11월 25일~29일까지 6일간의 실사를 실시했다.

○ 금년도 실사는 '84년도 노동부와의 합동 실태조사와는 달리 협의회 자체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실사내용도 인력, 시설장비 등의 외형적인 실사보다는 검진내용 및 지역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이행 여부등에 중점을 두었다.

○ 아울러 협의회는 실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86년도 특수검진기관 운영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진단 실시

○ 당협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50인미만 영세사업장 보건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하여 약 100여개 업체의 보건진단을 마쳤다.

○ 노동부로부터 선정받아 국고지원하에 실시하고 있는 198개 영세사업장의 보건진단은 12월 중순경에 끝마치게 될 계획이며

○ 아 보건진단은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예방사업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산업재해의 감소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이며

○ 금년 실시된 이 보건진단사업은 86년부터 약 1,000여개 업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필리핀 마닐라학회 참가

지난 11월 10일~15일(6일간)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개최한 제 11차 아세아 산업보건 학회 조규상 회장을 비롯 6명의 한국측 대표가 참가하였다.

이번 학회에서 조회장은 아세아 학회의 부회장으로서 산업보건사업분과학회 좌장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조회장은 학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국내 산업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일본의 노동재해예방협회와 안전보건연구센터를 방문하고 한일 양국간의 기술협력증진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부 음

계원철 부회장 모친상

당협회 부회장 계 원철 박사의 자당께서 11월 8일 09:00 강남구 반포동 자택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하였다.

발인일은 11월 11일이었으며, 영동 세브란스병원에서 영결식을 가진 후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사능리 산1번지에 있는 영락의 동산에 안장되었다.

김락형 충북지부장 모친상

당협회 김 락형 충북지부장의 자당께서 향년 93세로 11월 17일 01:08에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발인식은 11월 19일 09:30, 장지는 청원군 가덕면 천주교 공원묘지.